

환상속에 감춰진 도시의 ‘선과 악’ 희망은 어디에

배상하 작가 개인전, 2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도시’를 주제로 오랜 시간 천착해 온 배상하 작가가 고향인 광주에서 첫 번째 개인전 ‘The Blue City’를 개최한다.

오는 2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배상하 작가의 9번째 개인전이자 2013 파리 개인전 이후 10년 만에 갖는 자리다.

전시에서는 그의 초기 ‘도시’ 연작부터 최근작인 ‘The blue city’ 연작까지 총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상경해 중앙대에서 석박사까지 마친 그는 졸군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다. 그는 1994년 초당대 디자인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다시 고향에 터를 잡게 되고 30여년 동안 후학을 양성했다.

“교편을 잡는 동안 여러 활동으로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퇴직한 이후에야 온전히 작품활동에 집중하게 되면서 비로소 새로운 도시 연작을 펼쳐내게 된 거죠.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전시를 고향에서 처음 선보이게 돼 기쁩니다.”

그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1991년 환상적인 도시 풍경을 상징하는 ‘도시 심포니’ 연작을, 1995년 무안으로 내려와서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도시 이탈’ 연작을 선보이며 인간과 문명, 자연을 테마로 도시를 탐구해왔다.

이번 전시 주제인 ‘the blue city’ 연작은 도시의 양면성, 음과 양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현대인들의 삶이 지닌 도시의 다층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최근작인 ‘blue city’ 연작은 도시의 양면성 그 중에서도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가 갖고 있는 암울함에 맞서는 현대인들의 내면을 표현한 거죠. 이번 전시는 극단적인 리얼리티에서 벗어난 인간성 회복을 주제로 합니다.”

도시의 빛과 그늘을 상징하는 강렬한 패턴의 색채는 마치 환상적인 축제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화면 속 불연속적이고 기이한 형상은 현대인의 삶 속 함께해온 ‘상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는 앞으로 포스트모더니즘 매체를 이용한 극단적인 리얼리티를 벗어나 추상 회화를 통해 인간성 회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구상 위주의 광주 화단에서 추상적인 회화로 휴머니티의 회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매체 등 매커니즘적인 것보다는 손맛이 들어간 회화로 인간 내면을 드러내고 싶어요.”



‘The blue city 5’



‘The blue city 4’

내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 광주 방문

25-26일 비엔날레 방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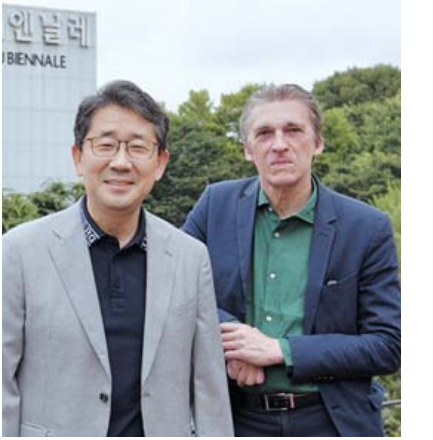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가 지난 20일 선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공식 일정 첫 날인 지난 21일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제문헌 3층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실무 임원들과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적인 의미와 향후 계획, 방향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일정 동안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미디어아트플랫폼 등 광주 주요 문화 예술 공간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광주의 역사적인 장소인 전일빌딩 245를 비롯해 양림동 일대, 풀뿌리 문화예술 공간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가 선임 이후 처음 광주를 방문했다. 사진은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와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

25일과 26일에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방향성 발표 기자회견이 광주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된다. /최명진 기자



올해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모리 유코 내년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작가 선정

이숙경 예술감독, 일본관 첫 외국인 큐레이터 선정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모리 유코(Yuko Mohri)가 내년에 열리는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작가로 선정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2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모리 유코가 내년 4월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열리는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작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숙경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또한 일본관 큐레이터로 임명되면서 일본관 첫 외국인 큐레이터로 선정됐다.

1980년 가나가와현 출생인 모리 유코는 현재 도쿄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설치미술가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 모리 유코는 외부 전시 공간 중 하나인 호랑가시 나무 아트폴리곤의 유리로 된 건축 공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해 장소특정적 생태계를 조성했다. 작가는 소설가 한강의 ‘흰’(2016)에 영감을 받아 ‘I/O’(2023) 설치 작품으로 재구성했다.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며 파도를 형상화하는 포물선 모양의 흰 종이와 돌보는 구조물이다.

모리 유코는 내년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을 통해 기후위기 등 동시대 상황 속에서 ‘예술과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모리 유코 작품 'I/O'(2011-2023)

더위도 이기는 ‘놀이판’ 열린다

내일 단오맛이 무등풍류연...단오부채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 풍성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오는 24일 풍요를 기원하는 단오명절을 맞아 무등풍류연 6월 행사 ‘단오 날은 쉬어가야지’를 개최한다.

먼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단오맛이 놀이썰매’에서는 창포삼파와 가족 카드지갑 만들기 체험할 수 있다.

전통놀이놀이연구소에서는 버나돌리기, 투호, 윷놀이, 오자미 등 전통놀이판을 준비했으며, 체험을 마친 시민들에게 감사편지를 나눠준다.

또한 입석당에서는 사전접수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달사베트’ 구연동화와 단오부채 꾸미기 체험을 진행한다. 동화 ‘달사베트’는 ‘구름빵’의 저자 백희나의 작품으로, 무더운 여름날 녹아내린 달로 사베트를 만들어먹는 상상력과 재치가 넘치는 동화다. 이야기가 끝나면 자신만의 단오부채 꾸미기도 할 수 있다.

오후 3시 너털마당에서는 광주무형문화재 용전들 노래보존회의 ‘여러루 상사뒤여~’ 토요상설공연이 펼쳐진다. 모판을 만들며 부르는 ‘모판만들기(오위소리)’, 못자리에서 모를 뽑아내면서 부르는 ‘모찌기(만들소리)’, 여러 명 일꾼이 모를 심으며 부르는 ‘모심기(상사소리)’, 초벌 김을 매며 부르는 ‘초벌매기



단오부채 꾸미기 체험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Detox cav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움 상가 2층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직 원 구 합

캠코더, 카메라 남·여 수리기사 모집 (급여 상담 후 결정)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CMYK